

I have been crucified with Christ and I no longer live,
but Christ lives in me.
(Galatians 2:20)

2014. 12

충현의 만나

Manna of Choonghyun

매일묵상 Q.T.

사도행전

구역모임 · 소그룹 성경공부(G.B.S.)

이사야

I have been crucified with Christ and I no longer live,
but Christ lives in me. (Galatians 2:20)

Contents

- 2 12월 일정표
- 4 매일묵상 사용 안내
- 6 기도제목표
- 7 매일묵상 Q.T.
- 63 구역모임 · 소그룹 성경공부(G.B.S.)

『충현의 만나』는 충현교회가 매달 발간하는 Q.T. 교재입니다.

12

December 2014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중직자	2 10교구	3 1교구	4 11교구	5 2교구	6 교역자
7 전교인	8 중직자	9 12교구	10 3교구	11 13교구	12 4교구	13 교역자
14 전교인 은퇴자 시상	15 중직자	16 14교구	17 5교구	18 15교구	19 6교구 성탄 축하 특별 찬양예배	20 교역자
21 전교인 특별재직회	22 중직자	23 16교구	24 7교구 성탄 축하 찬양의 밤	25 17교구 성탄절 가족연합예배	26 8교구	27 교역자
28 전교인 제6차 학습·세례식 공동의회	29 중직자	30 18교구	31 9교구			

교회 주요 일정

12월 14일
은퇴자 시상

12월 19일
성탄 축하 특별 찬양예배

12월 21일
특별제직회

12월 24일
성탄 축하 찬양의 밤

12월 25일
성탄절 가족연합예배

12월 28일
제6차 학습·세례식
공동의회

12월 14일
은퇴자 시상

12월 19일
성탄 축하 특별 찬양예배

12월 21일
특별제직회

12월 24일
성탄 축하 찬양의 밤

12월 25일
성탄절 가족연합예배

12월 28일
제6차 학습·세례식
공동의회

12월 14일
은퇴자 시상

12월 19일
성탄 축하 특별 찬양예배

12월 21일
특별제직회

12월 24일
성탄 축하 찬양의 밤

12월 25일
성탄절 가족연합예배

12월 28일
제6차 학습·세례식
공동의회

12월 14일
은퇴자 시상

12월 19일
성탄 축하 특별 찬양예배

12월 21일
특별제직회

12월 24일
성탄 축하 찬양의 밤

12월 25일
성탄절 가족연합예배

12월 28일
제6차 학습·세례식
공동의회

12월 14일
은퇴자 시상

12월 19일
성탄 축하 특별 찬양예배

12월 21일
특별제직회

12월 24일
성탄 축하 찬양의 밤

12월 25일
성탄절 가족연합예배

12월 28일
제6차 학습·세례식
공동의회

12월 14일
은퇴자 시상

12월 19일
성탄 축하 특별 찬양예배

12월 21일
특별제직회

12월 24일
성탄 축하 찬양의 밤

12월 25일
성탄절 가족연합예배

12월 28일
제6차 학습·세례식
공동의회

12월 14일
은퇴자 시상

12월 19일
성탄 축하 특별 찬양예배

12월 21일
특별제직회

12월 24일
성탄 축하 찬양의 밤

12월 25일
성탄절 가족연합예배

12월 28일
제6차 학습·세례식
공동의회

12월 14일
은퇴자 시상

12월 19일
성탄 축하 특별 찬양예배

12월 21일
특별제직회

12월 24일
성탄 축하 찬양의 밤

12월 25일
성탄절 가족연합예배

12월 28일
제6차 학습·세례식
공동의회

12월 14일
은퇴자 시상

12월 19일
성탄 축하 특별 찬양예배

12월 21일
특별제직회

12월 24일
성탄 축하 찬양의 밤

12월 25일
성탄절 가족연합예배

12월 28일
제6차 학습·세례식
공동의회

12월 14일
은퇴자 시상

12월 19일
성탄 축하 특별 찬양예배

12월 21일
특별제직회

12월 24일
성탄 축하 찬양의 밤

12월 25일
성탄절 가족연합예배

12월 28일
제6차 학습·세례식
공동의회

12월 14일
은퇴자 시상

12월 19일
성탄 축하 특별 찬양예배

12월 21일
특별제직회

12월 24일
성탄 축하 찬양의 밤

12월 25일
성탄절 가족연합예배

12월 28일
제6차 학습·세례식
공동의회

12월 14일
은퇴자 시상

12월 19일
성탄 축하 특별 찬양예배

12월 21일
특별제직회

12월 24일
성탄 축하 찬양의 밤

12월 25일
성탄절 가족연합예배

12월 28일
제6차 학습·세례식
공동의회

12월 14일
은퇴자 시상

12월 19일
성탄 축하 특별 찬양예배

12월 21일
특별제직회

12월 24일
성탄 축하 찬양의 밤

12월 25일
성탄절 가족연합예배

12월 28일
제6차 학습·세례식
공동의회

12월, 개인 전도 계획

2015 January **1**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충현의 만나’는 충현의 모든 성도들이 영의 양식인 성경을 매일 묵상하도록 매달 발행되는 Q.T.(Quite Time) 소책자이다. 충현의 만나는 독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중심으로 일정 분량의 본문을 볼 수 있도록 편집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실제 생활에 적용하도록 만들어졌다. 그동안 매일 성경을 1장씩 묵상하던 방식이 지금은 17절 내외로 정한 본문을 지면에 함께 실어서 어디서든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형태로 바뀌었다. 이에 ‘충현의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 묵상하는 방법을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우선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신에게 다음의 두 가지 기본적인 질문을 해 보자.

1. 첫째, 본문이 무엇을 말하는가?

제목을 정하라

우선 본문을 읽은 후, 본문이 말하는 주제를 선명하게 포착하기 위해 그 내용을 요약해야 한다. 각 문단의 핵심단어나 구절을 찾아 표시하고 본문의 핵심을 보여주는 단어를 중심으로 제목을 만들거나, 주제를 한 문장으로 다시 표현해 보면 본문이 말하는 바를 더 잘 알 수 있다. 충현의 만나 매일묵상은 2쪽

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좌측 상단의 날짜 옆에 본문의 전체 주제가 될 만한 구절을 뽑아 제목으로 달아 놓았다. 본문을 관찰하는 사람에 따라서 이 제목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만일 묵상하는 중에 본문의 주제를 더 정확하게 표현하는 말이 있다면 스스로 제목을 만들어 빈칸에 적어보는 것도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좋은 훈련이 된다.

본문의 배경을 살피라

본문을 쓴 인간 저자는 어떤 사람인지, 언제, 어디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누구에게, 무엇 때문에, 왜 기록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이런 정보는 성경 본문 안에서 주어질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성경 각 권의 개요를 설명한 책이나, 성경 사전, 혹은 도서관에서 주석을 참고하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단,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는 피하는 게 좋다. 많은 사이비, 이단들이 자신들의 블로그 등에 이단 교리를 올리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단이 아니라 할지라도 개혁주의 신학과 맞지 않는 해설을 퍼 나르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본문의 의미를 구체화 하라(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명확하게 밝히라)

본문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와 내용을 어느 정도 파악했다면, 이제는 본문의 내용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살펴야 한다. 본문의 뜻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 보면 도움이 된다.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나타났는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등장인물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인가?
 우리가 순종해야 할 명령은 무엇인가?
 우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따라가야 하는가?
 우리가 피하고 경계해야 할 죄는 무엇인가?

2. 둘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주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실제 생활에 적용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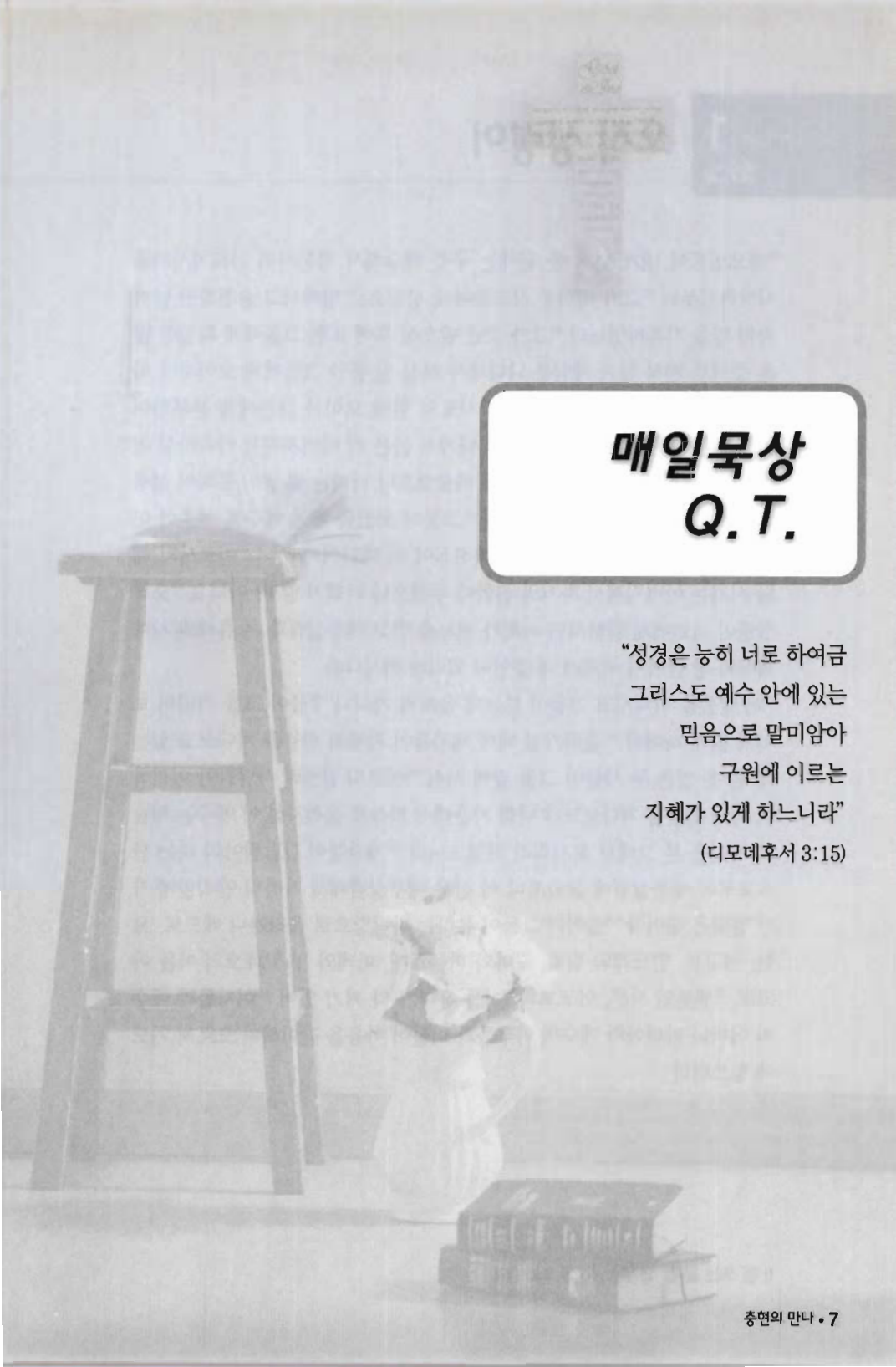
말씀을 묵상한 뒤, 우리는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온전히 순종하는 반응이 있어야 한다. 다음의 몇 가지 방법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자신의 무가치함을 인정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만을 의지하라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자백하고 회개하라

세상의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버리고 옛 생각에서 돌이키라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라
 내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고, 내가 잘못된 사람을 찾아가 용서를 구하라
 다른 사람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살피고,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라
 가까운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의 진리를 전하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하루를 시작하거나 혹은 잠자리에 들기 전에 말씀으로 점검한다면, 주님의 은혜를 더 분명하게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인간적인 노력으로 해 보려 한다면 실패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더욱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이 우리의 심령에 깊이 채워지도록 기도하면서 성령 하나님만 의지하여, 매일 말씀을 묵상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는 그들로 마음에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골 2:2~3).

- ① **충현교회가 오직 십자가의 복음으로만 든든히 세워지고, 복음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 ② **김동하 담임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사 십자가 복음의 통로로 사 용하여 주시고, 모든 교역자들과 중직자(장로, 안수집사, 권사)들이 십자가만 붙들게 하소서.**
- ③ **충현교회에 주신 5대 목표가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를 짊어로 이루어 지는 은혜를 베푸소서.**
- ④ **십자가 보혈로 풍성한 신령한 예배를 위하여 미리 준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총을 베푸소서.**
- ⑤ **충현의 교회학교 학생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온전히 깨 달아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천국일꾼이 되게 하소서.**
- ⑥ **모든 교구와 부서, 각 위원회가 십자가의 생명으로 충만하여 복음으 로 부흥하게 하소서.**
- ⑦ **1년 1인 1명 전도와 교회 주변 전도 및 해당 교구 전도와 동역 교회 전 도 지원을 통하여 민족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 ⑧ **복음의 오지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해외 단기선교에 자기를 부인 하는 믿음으로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가 되게 하소서.**
- ⑨ **충현교회의 재단들(유지·동산·복지)이 복음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 시고, 양로원, 가평·함양농원 개발이 은혜 중에 진행되게 하소서.**



매일묵상 Q.T.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후서 3:15)

오직 성령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㉓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㉔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사십 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㉕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㉖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㉗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쭙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 때니이까 하니 ^㉘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㉙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㉚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㉛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㉜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㉝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㉞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매, 마태와 밋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 ^㉟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㊱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㊲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 에 힘쓰더라

1) 헬, 또는 침례 2) 열심당 3) 또는 형제

본문 사도행전 1:1~14 찬송가 364장

하나님 나라의 일(1~8절)

예수님께서 지상사역 기간 동안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메시지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눅 4:43; 8:1; 9:1). 부활하신 이후에도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들에게 말씀 하셨습니다(3절).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때를 기대하는 제자들에게(5절) 온 세상에 나가서 증인이 되라는 사명을 주시며, 성령님의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8절). 누가복음에서 이어지는 사도행전(1~2절)은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확장해 가시는지를 보여 줍니다(8절).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9~14절)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을 믿는 믿음을 우리는 재림의 신앙이라고 말합니다(11절). 이 신앙은 하늘만 쳐다보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를 가리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명령을 따라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온 세상을 향해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적극적인 삶의 자세를 말합니다. 그래서 본문은 예수님의 승천과 다시 오심의 약속을 들은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 성령의 강림을 간구하며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14절).

Q. 지금,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있습니까?

Q.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쓸 동역자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⁴⁵모인 무리의 수가 약 백이십 명이나 되더라 그 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⁴⁶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 하도다 ⁴⁷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1) 직무의 한 부분을 맡 았던 자라 ⁴⁸(이 사람이 불의의 값으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 나온지라 ⁴⁹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 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 이라) ⁵⁰시편에 기록하였으되 2)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3) 그의 2)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⁵¹이러하므로 요한의 3)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⁵²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 야 하리라 하거늘 ⁵³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맛디아라 ⁵⁴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4)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⁵⁵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⁵⁶제비 뽑아 맛디아를 얻으니 그가 열한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1) 헬, 봉사의 2) 헬, 감독의 직분 3) 헬, 또는 침례 4) 시 69:25 5) 시 109:8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15~20절)

120명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사도 베드로가 일어나 가롯 유다에 대해서 입을 열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세 번이나 그분을 부인하였으나 부활하신 주님에 의해 회복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배신한 유다는 불신자로서의 본성을 드러냈고,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며 주님께 용서와 회복을 구하는 대신 절망에 빠져 결국 자살하고 말았습니다(18~19절). 제자가 자살한 이 사건은 교회를 약화시킬 수 있었지만, 교회는 오히려 새로운 사도를 세우는 계기로 삼았습니다(20절).

그들이 기도하여(21~26절)

사도들의 중요한 과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기독교 신앙의 뚜렷한 중심 표지인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22절). 그래서 사도를 세우기 위해 제비를 뽑기 전, 모인 사람들은 기도했습니다(24절). 12명의 사도에 들어갈 사람은 언변이 좋거나, 학식이 많거나, 물질이 풍부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과 항상 동행하는 사람이어야 했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언하며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신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일꾼을 택하시도록 그들은 기도했던 것입니다.

Q. 예수님과 어떻게 동행하고 있습니까?

Q. 교회의 직분자들을 위해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

¹¹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¹²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¹³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¹⁴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¹⁵그 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¹⁶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¹⁷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¹⁸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¹⁹우리는 바대인과 메대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²⁰브루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²¹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²²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²³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본문 사도행전 2:1~13 찬송가 501장

성령의 충만함(1~4절)

세례 요한이 말하고, 부활하신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부으신 사건이 유대의 오순절에 성취되었습니다(1절, 눅 3:16; 24:49). 성령께서 각 사람 위에 임하실 때 ‘불의 혀’ 처럼 갈라지는 것이 보였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4절). 이 사건의 통해 우리는 성령 충만의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란 눈에 보이는 어떠한 특별한 현상이 아니고, 또 우리가 성령을 소유하여 우리의 마음대로 그분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며,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5~13절)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여든 유대인들이 이 광경을 보고 놀랐습니다(7절).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각기 다른 나라의 언어로 말했기 때문입니다(6절). 이들이 외국어로 말한 메시지의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제자들이 하나님의 큰 일에 도구로 쓰임 받았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11절). 이 일을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13절), 그 자리에 모인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이를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12절).

Q.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과 성령의 충만은 어떤 관계입니까?

Q. 누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¹⁴⁶베드로가 일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¹⁴⁷때가 이제 삼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¹⁴⁸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¹⁴⁹“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¹⁵⁰그 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¹⁵¹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¹⁵²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¹⁵³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¹⁵⁴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¹⁵⁵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¹⁵⁶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¹⁵⁷“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뵈었음이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¹⁵⁸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지하리니 ¹⁵⁹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로다 ¹⁶⁰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¹⁶¹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¹⁶²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¹⁶³“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¹⁶⁴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¹⁶⁵이 일에 증인이로다 ¹⁶⁶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¹⁶⁷“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¹⁶⁸“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¹⁶⁹그러나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1) 오전 아홉 시 2) 또는 아홉 3) 또는 그의 4) 골 2:28 이하 5) 시 16:8 이하 6) 시 110:1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14~21절)

베드로는 제자들의 방언이 술주정이라고 조롱하는 유대인들을 향해 때가 오전 9시인 것과 선지자 요엘의 예언을 들어 반박합니다(14~16절). 그는 하나님의 영이 부어질 날이 오늘이며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고 선포했습니다. 이는 요엘 선지자가 말한 예언의 성취였습니다(21절).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부어 주시는 성령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22~36절)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사역(22절)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23절)과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24절) 우리의 구원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시편 16편과 110편에 나오는 다윗의 예언을 언급하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담긴 복음의 핵심을 전했습니다(25~28절). 그리고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 주심으로써 새 시대가 시작되었다고 선언하였습니다(33절). 그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써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확실하게 전했습니다(36절).

Q.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Q.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다른 사람에게 확신을 갖고 전할 수 있습니까?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

³⁷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찢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³⁸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 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¹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²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³⁹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⁴⁰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⁴¹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¹세례를 받으며 이 날에 신도의 수가 삼천이나 더하더라

⁴²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⁴³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³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⁴⁴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⁴⁵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며 ⁴⁶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⁴⁷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1) 혈, 또는 침례 2) 또는 성령을 선물로 3) 또는 이적

우리가 어찌할꼬(37~41절)

베드로는 자신의 설교를 듣고 '우리가 어찌할꼬'라며 마음에 찢림을 받아 애통해하는 사람들에게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고 선포했습니다(37~38절). 그리고 계속해서 여러 말로 확증하며 패역한 세대 가운데서 구원을 받으라고 권면했습니다(40절). 그 결과 그 날에 신도의 수가 3,000명이나 더해졌습니다(41절).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는 회개는 죄인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킵니다. 이러한 회개의 역사를 통해 교회는 성장해 왔고, 새 언약의 공동체는 확장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42~47절)

예루살렘에서 세례를 받은 사람들로 시작된 교회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드러납니다. 여기서 교회 공동체의 삶은 네 가지로 표현됩니다. 첫째, 사도의 가르침이 있었습니다(42절). 둘째,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진정한 교제가 있었습니다(44~45절). 셋째, 마음을 같이 하여 모이기를 힘쓰며 주님이 정하신 성찬을 나누었습니다(46절).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찬미하며(47절)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41절). 이것은 예수님의 몸 된 교회가 회복해야 할 생명력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Q.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야 할 사람이 주변에 있습니까?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Q. 교회에 모이기 위해 어떻게 힘쓰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① 제 구 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②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③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④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⑤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⑥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⑦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⑧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걸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⑨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⑩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우리를 보라(1~5절)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올라가는 베드로와 요한을 미문에 있는 걸인이 보았습니다(1절). 그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여 다른 이들의 도움으로 그곳에 옮겨져 돈을 구걸하고 있었습니다(2절). 그 걸인은 베드로와 요한이 자신을 주목하여 보면서 '우리를 보라' 라고 말하자 무엇을 얻고자 하는 기대를 갖게 되었습니다(4~5절). 걸인의 눈에는 사도들이나 일반인들이나 다 똑같이 보였습니다. 그는 늘 자신이 하던 습관대로 돈만 구걸하면 되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사도들은 그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 그를 주목하였습니다.

일어나 걸으라(6~10절)

걸인의 기대와는 달리 사도들에게는 은과 금이 없었습니다(6절). 그들은 자신들에게 있는 것은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하며 그를 잡아 일으키자 그는 서서 걸으며 뛰기 시작했습니다(8절).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은 낫고자 하는 믿음이 없었지만, 예수님은 사도들을 통해 은혜로 그를 치유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택하심과 전적인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Q. 다른 사람의 영혼을 볼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Q.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떤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¹¹⁷나온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¹¹⁸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건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¹¹⁹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¹²⁰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 주고 빌라도가 놓아 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¹²¹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이를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를 구하여 ¹²²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¹²³이 일에 증인이라 ¹²⁴그 이름을 믿으므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¹²⁵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¹²⁶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¹²⁷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¹²⁸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라 ¹²⁹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 두리라 ¹³⁰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¹³¹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 받으리라 하였고 ¹³²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¹³³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¹³⁴하나님이 그 ¹³⁵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였느니라

1) 또는 소자 2) 또는 그의 3) 신 18:15 4) 신 18:19 5) 창 12:3, 22:18, 26:4, 28:14

본문 사도행전 3:11~26 찬송가 251장

그 이름을 믿음으로(11~16절)

성전 미문에 걸지 못하여 앉아 구걸하던 사람이 고침을 받아서 걷고 뛰는 소문이 퍼지자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행각으로 모여들었습니다(11절).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자 베드로는 이 큰 능력을 행하신 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시라고 증거했습니다(13~16절). 그의 말처럼 이적은 사도들의 권능과 경건으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12절). 사도들의 이적과 모든 사역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기독교 사역은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을 선포할 때 완성됩니다(16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17~26절)

베드로는 자신의 설교를 듣는 청중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그에 따른 회개를 요청했습니다. 그는 신명기 18:15, 19을 인용하며, 모세를 신뢰한다면 그가 증언하는 예수님에 대해서도 믿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22~23절). 그리고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온전히 이루셨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비롯한 모든 민족이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Q.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Q. 구약과 신약의 관계를 설명해 보십시오.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¹¹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¹²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¹³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¹⁴그들을 잡으매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¹⁵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오천이나 되었더라 ¹⁶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¹⁷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¹⁸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¹⁹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²⁰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²¹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²²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²³다른 이로써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²⁴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²⁵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²⁶명하여 공회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²⁷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²⁸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 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²⁹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³⁰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³¹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³²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³³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사십여 세나 되었더라

1) 또는 경비대장 2) 또는 이적 3) 시 118:22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1~12절)

사도들이 백성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언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와서 사도들을 잡아 가두었습니다(1~3절). 그 이유는 사도들이 성경과 그들이 목격한 바를 근거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백성에게 가르치고 전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의 종교지도자들은 사도들에게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도를 전하는지 추궁했습니다(7절). 이 질문에 대해 베드로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성령이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 (12절)라고 더욱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판단하라(13~22절)

사도들은 지도자들의 위협에도 겁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들을 심문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고 하며 되레 따져 물었습니다(19절). 사도들은 자신들이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이들이 이처럼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분명한 사실이었으며, 또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사실을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Q. 당신이 갖고 있는 가장 큰 권세는 무엇입니까?

Q. 언제 사람들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신뢰합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²³⁸ 사도들이 놓이매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²³⁹ 그들이 듣고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재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²⁴⁰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
를 경영하였는고" ²⁴¹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²⁴²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²⁴³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
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²⁴⁴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며 ²⁴⁵ 손을 내밀
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²⁴⁶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
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²⁴⁷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
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²⁴⁸ 믿는 무리가 한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
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²⁴⁹ 사도들이 큰 권능
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²⁵⁰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²⁵¹ 사
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²⁵² 구브
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라(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²⁵³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
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본문 사도행전 4:23~37 찬송가 162장

빌기를 다함(23~31절)

사도들이 당한 핍박의 소식을 들었지만(23절), 교회는 자신들의 안전을 간구하기보다 오히려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담대히 전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하나님께 구했습니다(29절). 또한 교회는 치유와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계속 일어나게 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30절). 이들이 빌기를 다하자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31절). 이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바라셨던 그 모습처럼(눅 22:42), 고난에 맞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끝까지 전하기 위해 하나님께 빌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32~37절)

성령으로 하나가 된 성도들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며 자기의 소유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32절).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물질의 위력이 아닌 성령의 권능에 사로잡히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서로에 대한 책임'을 강하게 느꼈고, 율법적 의무가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우리나를 자발적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바나바는 이 일을 실천한 사람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37절). 그의 심장에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Q.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Q. 당신이 모든 재물을 하나님을 위해 어떻게 사용할지
기도하고 있습니까?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¹⁾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²⁾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³⁾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 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⁴⁾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⁵⁾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⁶⁾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⁷⁾세 시간 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⁸⁾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⁹⁾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¹⁰⁾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베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¹¹⁾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¹²⁾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¹³⁾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¹⁴⁾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¹⁵⁾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¹⁶⁾예루살렘 부근의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본문 사도행전 5:1~16 찬송가 171장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나(1~11절)

에덴동산에서 인류를 타락시켰던 거짓의 영은 주님의 교회에도 들어왔습니다. 성령을 속이려 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거짓말이 거룩한 공동체를 무너뜨릴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도를 통해 이들을 즉시 심판하셨습니다. 이들 부부의 외형적 모습은 바나바와 같아 보였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내면은 성령이 아닌 사탄으로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성경에 기록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위선과 거짓을 경계하게 하십니다(11절). 거짓된 헌신은 하나님의 영을 시험하고 속이는 아주 심각한 범죄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외식을 매우 역겨워 하십니다(마 23:27).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12~16절)

아나니아 사건 이후에도 사도들은 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했고(12절), 이에 믿는 무리의 수가 더해졌습니다(14절).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큰 무리가 따랐던 것처럼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이적이 나타났습니다(15~16절).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요 14:12).

Q. 헌금을 드릴 때에 누구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고 싶습니다?

Q. 예수님의 살아 계심을 믿습니까?

우리는 이 일에 증인이요

¹⁷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¹⁸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¹⁹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²⁰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²¹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²²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²³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²⁴성전 ²말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²⁵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라 하니 ²⁶성전 말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 이더라 ²⁷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²⁸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²⁹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³⁰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³¹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³오른손으로 높이 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³²우리는 이 ⁴일에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1) 또는 공회 즉 이스라엘 2) 또는 경비대장 3) 또는 오른편에 4) 또는 말씀의

성전에 서서(17~28절)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 시기심이 가득 차서 또다시 사도들을 옥에 가두었습니다(17~18절). 시기심으로 충만한 종교 지도자들과 성령으로 충만한 사도들의 모습이 대조를 이룹니다. 자신들의 자리와 안위만을 생각하여 백성을 두려워했던 지도자들과는 달리(26절), 사도들은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다 말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주님의 사역을 이어갔습니다. 그들이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면 다시 체포될 것이 뻔했지만, 그들은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눈에 보이는 공회의 권위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세를 더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성령도 그러하니라(29~32절)

30절에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이란 표현은 신명기 21:22에서 이미 예언되어진 말씀입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죄 없으신 예수님을 죄인으로 만들어서 십자가에서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분을 살려 인류의 구주로 삼으시고, 만왕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31절). 그리고 하나님은 사도들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그들과 함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해 주셨습니다(32절).

Q.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전하고 있습니까?

Q. 복음을 전할 때, 당신과 함께하는 분은 누구입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

⁽³⁹⁾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새 ⁽⁴⁰⁾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⁴¹⁾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⁴²⁾ 이 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매 사람이 약 사백 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매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⁴³⁾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꺾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⁴⁴⁾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 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⁴⁵⁾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⁴⁶⁾ 그들이 옹계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⁴⁷⁾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⁴⁸⁾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본문 사도행전 5:33~42 찬송가 461장

만일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면(33~39절)

가말리엘 1세는 유명한 율법학자 힐렐의 손자로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던 인물이었습니다(34절). 공회원들이 사도들을 죽이려 하자, 그가 일어나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공회원들에게 신중을 기하라고 경고하면서 사도들을 놓아주라고 충고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그들의 배후에 계시는지는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가말리엘은 이처럼 지혜로웠지만, 그의 지혜로도 복음을 깨달을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지혜는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요 3:6).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 이름을 위하여(40~42절)

사도들은 혹독한 매질과 모욕을 당하고도 오히려 당당하게 공회를 떠나갔습니다(41절). 자신들이 당하는 고난의 의미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당한 능욕을 예수님이 자신들을 고난 받을 만한 수준의 사람으로 인정해 주셨다는 증거로 삼았습니다. 이와 같이 사도들은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당하는 것을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뒤로도 계속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42절).

Q. 성경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발견하고 있습니까?

Q. 예수님을 위하여 기꺼이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그 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와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지므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¹⁾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 놓고²⁾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³⁾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⁴⁾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⁵⁾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테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콜라를 택하여⁶⁾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⁷⁾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⁸⁾ 도에 복종하니라

“스테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⁹⁾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¹⁰⁾ 이른 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테반과 더불어 논쟁할새¹¹⁾ 스테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¹²⁾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¹³⁾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총동시쳐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¹⁴⁾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¹⁵⁾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 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¹⁶⁾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테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1) 헬, 봉사 2) 또는 재정 출납을 3) 헬, 말씀의 봉사에 4) 헬, 믿음 5) 또는 이적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1~7절)

초대교회에 믿는 자들이 많아지자 그에 따른 새로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히브리어 혹은 아람어를 쓰는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헬라어를 사용하는 유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그들에게 속한 과부의 구제에 대한 형평성 문제로 갈등이 빚어진 것입니다(1절). 사도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받는 사람 일곱 명을 따로 세웠습니다(3, 5절). 사도들이 무능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에 힘쓰려고 했기 때문입니다(4절). 이처럼 구제와 봉사가 매우 귀한 일이지만, 복음 전파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8~15절)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습니다. 또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였기 때문에 그와 더불어 논쟁하는 사람들이 그를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의 대적자들이 거짓 증인들까지 동원하여 그를 잡아 공회로 끌고 가서 곤경에 빠뜨렸으나 그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았습니다. 스데반이 이와 같이 행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속에서 예수님의 영이 역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스데반을 예수님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Q. 현재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신은 어떤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Q. 당신은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스데반이 이르되

¹¹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나 ¹²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
 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¹³이르시되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¹⁴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으매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
 셧느니라 ¹⁵그러나 여기서 밭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작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¹⁶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사백 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고 ¹⁷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 곳에서 나를 섬기
 리라 하고 ¹⁸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
 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열두 조상을 낳으니라
¹⁹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서 ²⁰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매 바로
 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²¹그 때에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새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²²야
 곱이 애굽에 곡식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²³또 재차 보
 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
 나게 되니라 ²⁴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일흔다섯
 사람을 청하였더니 ²⁵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²⁶세겔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겔 하물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 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²⁷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
 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²⁸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
 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²⁹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새 ³⁰그 때에 모세
 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³¹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³²모
 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이것이 사실이냐(1~8절)

스데반은 자신이 당한 고발에 대해 이스라엘의 역사를 근거로 제시하며 그 내용의 부당함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이 역사 개관을 통해 그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구원이 예수님으로 인해 성취되었음을 강조하고 동시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 왔는지를 폭로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그는 이스라엘 반역의 역사의 정점이 하나님께서 보낸 신구원자를 배척하는 행위로 이어진다는 점을 알리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장 먼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주권으로 선택하시고 언약을 맺은 사실과 아브라함을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삼으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9~22절)

하나님은 요셉을 환난 가운데서 건져 내신 후에 그를 통해 많은 사람을 구원하셨습니다. 요셉이 기근으로 인한 환난에서 사람을 구해 낸 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에서 영혼들을 구원해 내실 것을 예표한 것이었습니다. 스데반은 예수님의 모형으로 제시된 요셉 이야기를 전개했습니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버림받은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에게 배척당한 일이 연결되어 있음을 말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Q. 하나님 나라와 이스라엘 역사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Q.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구원하려고

235 나이가 사십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236 한 사람
 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 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237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
 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238 이
 틈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
 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239 그 동무를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
 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240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241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
 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242 사십 년이 차매
 천사가 시내 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243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244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
 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245 주께서 이르시되 네 발의 신을 벗으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246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247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
 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
 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248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사십 년간 기사와 249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250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251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252 시내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
 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 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253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
 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254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255 그 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256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257 그 하늘의 군대 섬
 기는 일에 버려 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258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사십 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259 물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음이여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
 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1) 또는 이적 2) 그 하늘의 별들 3) 신 18:15 4) 암 5:25 이하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23~36절)

스데반은 모세의 일생을 사십 년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세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했습니다(23, 30, 36절). 모세는 첫째 사십 년 동안, 바로의 왕궁에 살면서 애굽의 학술을 배웠습니다. 스데반은 특히 모세의 둘째 사십 년과 셋째 사십 년을 중요하게 여겼는데, 그는 모세의 둘째 사십 년에 관한 설명에서 두 가지의 사건을 진술합니다(23~29절). 우리는 이 부분에서 모세와 예수님 사이의 비교를 지나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두 경우 모두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돕기 위해 보낸 지도자와 구원자를 그 백성이 배척했기 때문입니다.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37~43절)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배척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구원을 거절했습니다. 이와 똑같은 일이 예수님께도 일어났습니다. 37절에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 라고 말한 것과 같이 모세는 오래 전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자기와 같은 선지자가 올 것을 예언했습니다(신18:15). 모세가 예언한 선지자는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스데반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또한 예수님께 불순종하며 하나님께 반역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Q. 사람을 통해 일하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Q.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해 전적으로 순종하고 있습니까?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⁴⁴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⁴⁵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⁴⁶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⁴⁷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⁴⁸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⁴⁹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⁵⁰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⁵¹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⁵²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의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 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⁵³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⁵⁴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찢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⁵⁵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 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⁵⁶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⁵⁷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⁵⁸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새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⁵⁹그들이 돌로 스테반을 치니 스테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⁶⁰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1) 다른 사본에, 하나님을 위하여 처소를 7) 사 66:1 이하

하나님의 처소(44~50절)

스데반은 성전을 모독했다는 이유로 피소되었습니다(행 6:13). 그는 성전의 중요성을 무시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성전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한 것뿐인데 말입니다. 하나님은 성전 안에, 또 이스라엘 민족 안에만 계신 분이 아닙니다. 일찍이 성전을 건축했던 솔로몬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대하 6:18). 스데반은 이사야 66:1~2을 인용하며 이 내용을 더욱 힘 있는 주장으로 펼쳤습니다. 그가 이처럼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그의 몸 된 교회가 참된 '성전'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51~60절)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거역은 하나님이 보내신 의인을 배척하는 행위를 통해 절정에 이릅니다(52절).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한 스데반의 신랄한 비판은 그들에게 모욕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구원을 받아들이라는 열정적 호소였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듣는 사람들에게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아 성령을 거스르지 말라고 힘주어 말했습니다(51절). 그러나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고 도리어 돌을 들어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Q.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지식 가운데 무소부재란 무슨 뜻입니까?

Q. 성령을 거스른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 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①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②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③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④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⑥ 표적도 보고 한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⑦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⑧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⑨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⑩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⑪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⑫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⑬ 세례를 받으니 ⑭ 시몬도 믿고 ⑮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1) 또는 이적 2) 헬, 또는 침례

그리스도를 백성에 전파하니(1~8절)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핍박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가 당한 환란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복음의 진보로 나타났습니다. 왜냐하면 이 어려움을 계기로 많은 사람들이 모든 땅으로 흩어져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1b, 4절). 흩어진 사람들은 자신들의 사명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 중 사도행전 6:2~6에서 선출된 일곱 명 가운데 한 사람인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전파했고(5절),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 그 성에는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8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9~13절)

사마리아 성에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살고 있었습니다(9절). 혼합 종교의 도시인 사마리아 성에 살던 사람들은 그가 가진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10절). 그 성의 사람들이 빌립을 통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받고 세례를 받자, 그들은 무엇이 참 표적이며 하나님의 큰 능력인지 알게 되었습니다(13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십자가의 도)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의 큰 능력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되었습니다(고전 1:18).

Q. 현재 당신이 누리는 가장 큰 기쁨은 무엇입니까?

Q. 당신은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경험해 보았습니까?

복음을 전하니라

¹³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¹⁵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¹⁶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¹⁷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¹⁸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드려 ¹⁹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²⁰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²¹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²²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 될 것도 없느니라 ²³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²⁴내가 보니 너는 ²⁵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²⁶매인 바 되었도다 ²⁷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²⁸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1) 또는 일에는 2) 행, 쓴 답즙이 3) 또는 매는 자가 되었도다

성령을 받는지라(14~17절)

예루살렘 교회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습니다(14절). 두 사람이 내려가 그곳 사람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고 안수하자 그곳에 성령이 임했습니다(17절). 이와 같은 일은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의 뿌리 깊은 적대관계를 성령 안에서 해소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도들로 하여금 사마리아 신자들이 하나님의 한 백성임을 확인하게 하였고, 사마리아 신자들은 사도들의 권위를 인정하여 성령 안에서 진정한 연합과 친교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18~25절)

시몬은 사도들의 권능을 돈으로 사려고 했습니다(18~19절). 그는 아마도 성령의 능력으로 부와 명예를 얻으려 했던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베드로는 인간이 성령을 마음대로 주장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밝히며(20절), 복음을 자신의 이기적 욕심으로 쓰려는 시몬에게 그 악함을 회개하라고 꾸짖었습니다(21~22절).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자 베드로와 요한은 얼마 동안 계속 머물러 있으면서 주의 말씀을 전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25절).

Q. 주위에 주의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아야 할 사람이 있습니까?

Q. 복음을 전한 뒤에 그들을 양육하는 일이 왜 중요합니까?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³⁶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³⁷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비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³⁸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³⁹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⁴⁰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⁴¹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⁴²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⁴³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⁴⁴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⁴⁵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⁴⁶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⁴⁷ 2(없음) ⁴⁸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⁴⁹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⁵⁰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⁵¹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1) 헬, 또는 침례 2) 어떤 사본에, 37 '빌립이 이르되 네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하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노라' 가 있음

3) 헬, 빼앗아간지라 7) 사 53:7 이하

성령이 빌립더러(26~31절)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한 사건은 복음이 사마리아뿐 아니라 이방에까지 널리 전파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복음의 확장은 철저히 성령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로 이루어졌습니다(26, 29절). 빌립은 이미 사마리아에서 놀라운 전도의 열매를 거두었지만, 그는 그 경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였습니다. 빌립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성경을 알고 싶어 했으나 지도해 줄 사람이 없어 답답해하던 내시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31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32~40절)

병거에 오른 빌립은 내시가 읽고 있던 이사야의 말씀을 풀어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사야의 예언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했고, 십자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내시는 예수님을 믿었으며, 가던 길을 멈추고 세례 받았습니다. 내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자 성령께서는 곧바로 빌립을 다른 곳으로 이끌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쓰임 받을 때, 사역의 시작과 끝도 주님께서 정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단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복음만 전하면 됩니다.

Q.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그분의 지도를 받고 있습니까?

Q. 우리 사역의 시작과 끝을 정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나의 그릇이라

¹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²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³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⁴땅에 엎드려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⁵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⁶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⁷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⁸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 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⁹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¹⁰그 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¹¹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¹²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¹³보았느니라 하시거늘 ¹⁴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게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¹⁵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¹⁶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¹⁷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¹⁸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¹⁹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²⁰세례를 받고 ²¹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²²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²³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고 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²⁴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1) 어떤 사본에, 환상 중에 보았느니라 2) 헬, 또는 침례

하늘로부터 빛이(1~9절)

기독교의 광적인 박해자가 가장 위대한 이방의 선교사가 되었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방 세계로 뻗어가는 선교의 역사가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인 교회를 박해하던 바울에게 제자들을 박해하는 것이 곧 자신에 대한 박해라고(5절)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빛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바울은 빛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난 후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영원한 빛 되신 예수님은 바울이 영적인 새로운 눈을 뜨도록 잠시 그 눈을 감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제(10~22절)

바울은 실명한 상태로 사흘 동안 금식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렸고, 주님은 바울에게 아나니아를 보내셨습니다. 아나니아는 처음에 바울에게 가기를 꺼렸지만, 바울을 쓰시기 위한 주님의 계획을 듣고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를 찾아가 그에게 안수하여 보게 한 뒤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바울은 놀랍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지체하지 않고,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습니다.

Q. 당신에게 예수님이 언제 처음 찾아오셨습니까?

Q. 영적인 성장을 돕는 후원자가 있습니까?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³²⁾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³³⁾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³⁴⁾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³⁵⁾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 됨을 믿지 아니하니 ⁽³⁶⁾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³⁷⁾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³⁸⁾ 또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³⁹⁾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스로 보내니라 ⁽⁴⁰⁾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 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⁴¹⁾ 그 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⁴²⁾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여덟 해라 ⁽⁴³⁾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한대 곧 일어나니 ⁽⁴⁴⁾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⁴⁵⁾ 옫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⁴⁶⁾ 그 때에 병들어 죽으매 시체를 찢어 다락에 누이니라 ⁽⁴⁷⁾ 룻다가 옫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⁴⁸⁾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겹옷을 다 내보이거늘 ⁽⁴⁹⁾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⁵⁰⁾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 들어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⁵¹⁾ 온 옫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⁵²⁾ 베드로가 옫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1) 또는 후원으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23~31절)

16절에서 바울에게 닥칠 것이라고 말한 박해가 시작됩니다(23절). 유대인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을 지켰습니다. 바울은 가까스로 다메섹에서부터 도망쳐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자들과 출입하며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곳에서도 바울은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처럼 초대교회는 혹독한 박해 속에서도 가장 가혹한 박해자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으며,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되어 믿는 자들의 수가 더 많아지게 되었습니다(31절).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32~43절)

베드로는 주님이 주신 기회를 따라 사방으로 두루 다니며 지역 교회들을 돌아보았습니다(32절). 그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그분의 권세와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주님은 그를 들어서 쓰심으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것과 부활을 목격했으므로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이적을 행했습니다. 이는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성령님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Q. 바울이 위협 속에서도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Q. 성령이 행하시는 이적과 사람들이 말하는 기적에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①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②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③하루는 제 구 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④고넬료가 주 묵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⑤네가 지금 사람들을 옴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⑥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⑦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⑧이 일을 다 이르고 옴바로 보내니라

^⑨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 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 육 시더라 ^⑩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⑪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매어 땅에 드리웠더라 ^⑫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⑬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⑭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대 ^⑮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⑯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무슨 일이니까(1~8절)

가이사라는 읍바에서 약 50km 떨어져 있는 도시로서, 유대와 사마리아 지방을 관장하는 총독의 주재지이며 로마군 수비대의 주둔지였습니다. 그 당시 이방인 가운데 이방 종교에 환멸을 느끼고 유대교의 회당 예배에 참가하면서 회당 공동체에 들어가려던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고넬료가 그 중 한 사람입니다. 아마도 그는 유대교에 정식으로 가입하고자 경건생활에 힘썼을 것입니다. 율법적 삶을 통해 그 목표를 이루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런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고넬료의 경건으로 얻을 수 없는 구원을 선물로 주시기로 작정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9~16절)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신 주님은 읍바에 있는 베드로에게로 오셨습니다. 베드로는 기도 중에 하늘이 열리며 보자기 같은 큰 그릇 안에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담겨서 내려오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잡아서 먹으라는 명령을 들었습니다. 베드로가 거절하자 주님은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며 같은 일을 세 번 반복해서 보여 주셨습니다.

Q. 경건한 삶이 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조건이 될 수 없습니까?

Q. 하나님의 말씀보다 혹시 사람의 전통을 더 따르는 일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¹⁷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¹⁸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¹⁹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²⁰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²¹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²²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²³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로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대 ²⁴베드로가 불러 들어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옴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²⁵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²⁶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리어 절하니 ²⁷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²⁸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²⁹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³⁰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문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내가 그를 보내었느니라(17~23절)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갖고 있는 전통적 생각을 극복하도록 도우시며 영적인 모든 의문을 풀어주시는 분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찾아온 이방인들을 보고서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이 본 환상의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은 베드로에게 주의 복음이 어떻게 이방인에게까지 전해져야 하는지를 보여 주셨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개입이 없었다면 베드로와 고넬료는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교회에서 성도의 교제를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24~29절)

하나님은 베드로의 생각과 행동을 주관하셔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온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가르침과 지시에 따른 것입니다. 복음을 아직 듣지 못한 고넬료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경계를 혼동함으로써 이교적 사고에서 완전히 탈피하지 못한 모습을 보였습니다(25~26절). 이에 베드로는 그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 잡아주며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지 않는 전통을 깨고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온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Q.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지체들을 한 자리로 불러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Q.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³³⁾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구 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³⁴⁾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은 네 기도를 들으시고 네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³⁵⁾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³⁶⁾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³⁷⁾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³⁸⁾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³⁹⁾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⁴⁰⁾ 곧 요한이 그 ⁽⁴¹⁾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⁴²⁾ 하나님은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매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⁴³⁾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에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⁴⁴⁾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⁴⁵⁾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⁴⁶⁾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였고 ⁽⁴⁷⁾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⁴⁸⁾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⁴⁹⁾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⁵⁰⁾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⁵¹⁾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 ⁽⁵²⁾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을 금하리요 하고 ⁽⁵³⁾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떠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1) 헬 또는 침례 2) 헬 성령의 선물 부어 주심으로

화평의 복음(30~43절)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나 인종, 혈통이나 신분 등을 초월하여 부르시고 구원하십니다. 이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완성되었습니다. 이 구원의 역사가 예수님의 사역 안에서, 사탄의 속박에 매인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복된 능력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이 일을 온 땅에 두루 다니며 증언하도록 베드로와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일어난 이와 같은 일련의 사건을 간결하게 진술했습니다.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44~48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딤후 2:4).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도 차별 없이 동일한 성령을 부어 주십니다. 고넬료의 집에 모여 있는 이방인 모두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유대인 신자들은,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에게도 동일한 성령이 임한 사실을 목격하고 크게 놀랐습니다. 베드로 일행은 자신들과 동일한 성령을 받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Q.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전할 복음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Q.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②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③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④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⑤이르되 내가 욥바 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네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⑥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⑦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⑧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⑨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⑩이런 일이 세 번 있는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⑪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⑫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⑬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네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문을 청하라 ⑭그가 너와 네 온 집이 구원 받을 말씀을 네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⑮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⑯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⑰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⑱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⑲그러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⑳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1~10절)

이방인인 고넬료와 그의 집안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지 않고, 오히려 베드로를 비난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 선교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이방인과 접촉하고 더욱이 무할레자의 집에서 함께 식사를 했다는 사실에 촉각을 곤두 세웠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자신을 비판하며 여전히 율법에 매여 있는 그들에게 분을 내거나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복음이 민족의 장벽을 넘어 땅 끝까지 전파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을 차분하게 알렸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구원 받을 말씀(11~18절)

베드로는 그동안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성령의 인도였음을 분명하게 말했습니다(12~13절).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고넬료의 가정에 보내신 목적이 그들에게 '구원 받을 말씀'을 전하는 데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역사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 없이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기에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입니다. 그는 구원의 선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이 은혜를 능히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17절).

**Q.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을
어떤 태도로 대해야 합니까?**

Q.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해 누군가를 비난한 적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

¹³⁹그 때에 스테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¹⁴⁰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¹⁴¹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²전파하니 ¹⁴²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¹⁴³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¹⁴⁴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¹⁴⁵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¹⁴⁶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¹⁴⁷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일 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¹⁴⁸그 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¹⁴⁹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¹⁵⁰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³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¹⁵¹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1) 어떤 사본에, 헬라파 유대인에게도 2) 헬, 복음으로 전하니 3) 헬, 봉사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19~24절)

스데반의 순교 후에 예루살렘 교회는 큰 박해로 성도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이들 가운데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비록 소수일지라도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 부흥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두세 사람일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교회의 진정한 부흥의 토대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마 18:20).

각각 그 힘대로(25~30절)

예루살렘 교회는 새로 세워진 안디옥 교회에 지도자를 파송해 그들이 굳게 설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큰 흉년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물질적인 도움을 주었습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교제는 지역의 테두리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의 일치와 연합과 섬김의 본을 보여 주었습니다. 오늘날 현대교회는 자기 교회중심의 성장주의에서 벗어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서로 동역하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해야 합니다.

Q.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내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Q. 어려움을 당한 다른 나라, 다른 지역의 교회를 어떻게 돕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 말을 전하라

“그 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②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③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④잡으매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 패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 내고자 하더라 ⑤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⑥헤롯이 잡아 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죄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⑦홀연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죄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⑧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겹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⑨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⑩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서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⑫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⑬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대 로데라 하는 여자 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⑭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⑮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 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⑯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⑰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1~10절)

예루살렘에 또다시 큰 시련이 닥쳐왔습니다. 헤롯 왕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서 정치적 입지를 강화할 목적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인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까지 잡아들였습니다. 그러나 헤롯의 기대와는 달리 이 사건을 계기로 이방인을 향한 복음 전파는 더 가속화되었습니다. 온 세계로 주님의 제자들을 보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성취하는 성령 하나님은 감옥에 단단히 매여 있는 베드로를 이끌어 내어 주님의 뜻을 계속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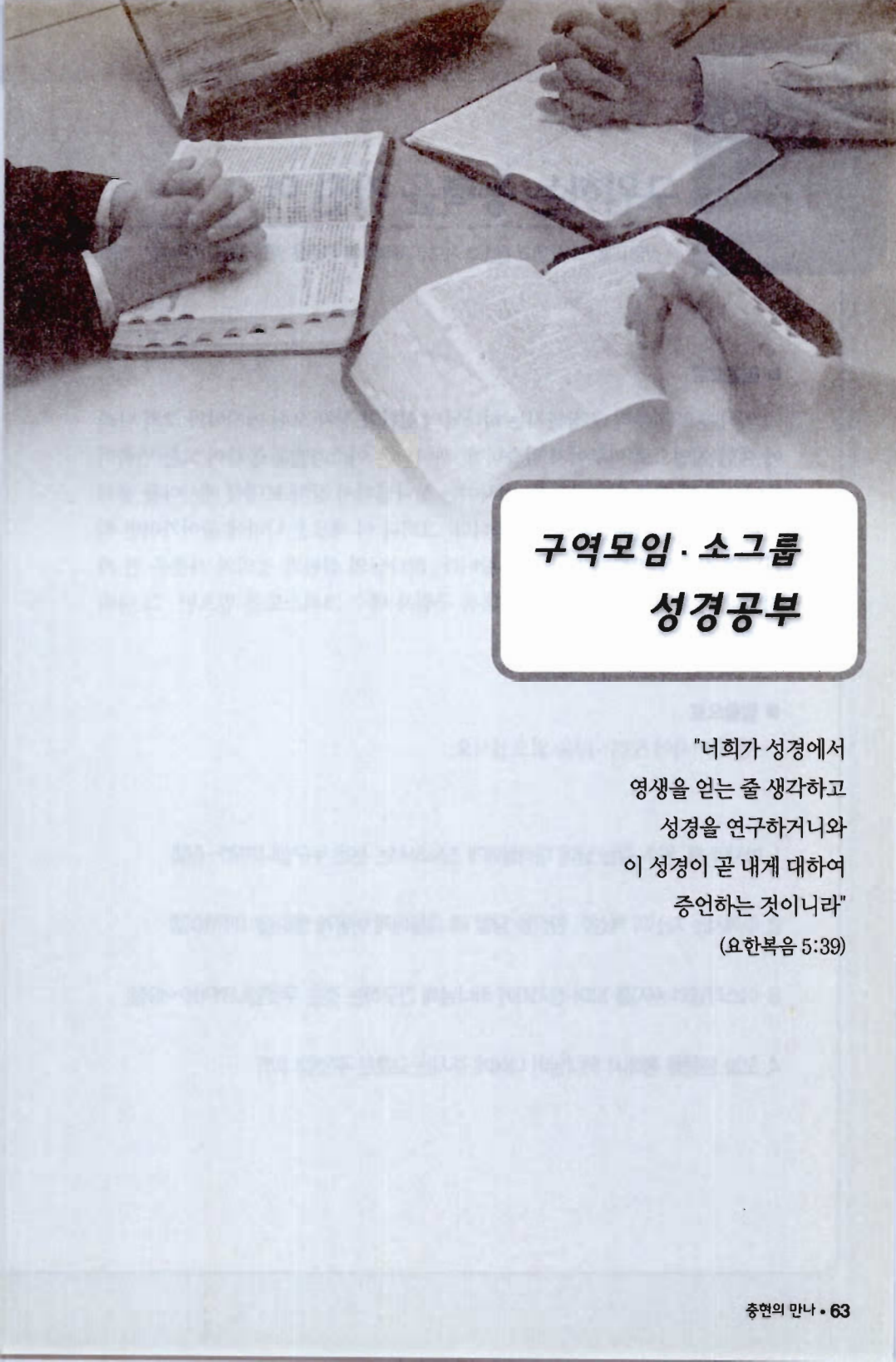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11~17절)

천사의 도움으로 감옥에서 나온 베드로는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이 모인 장소로 찾아갔습니다. 성도들은 헤롯의 손에서 베드로가 빠져나오지 못하고 순교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베드로도 또한 하나님께서 감옥으로부터 그를 이끌어 내시기 전까지 자신이 살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와 그를 위해 기도하던 성도들의 바람은 살든지 죽든지 그들에게서 오직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빌 1:20). 이 기대와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Q.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 교구와 구역과 부서를 통해 어떻게 확장되고 있습니까?

Q. 2015년, 당신의 가장 큰 기대와 소망은 무엇입니까?



구역모임 · 소그룹 성경공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5:39)

12월 7일

주일

구역모임
소그룹 성경공부
(G.B.S.)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

* 신앙고백(사도신경)과 찬송과 기도로 시작한 후 본문을 읽고 말씀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 믿음으로

이사야 63장부터 66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과 장차 오실 메시아와 그의 나라에 대한 예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하여 모든 민족이 돌아오게 될 것을 약속하셨고,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장차 보내실 메시아를 통해 새로운 나라를 이루신다고 선포합니다. 그러나 이 새로운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심판을 반드시 통과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정의의 기준은 한 가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나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 말씀으로

먼저 이사야 63:1~19을 읽으십시오.

1. 마지막 때, 원수 갚는 날에 대적들에게 진노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1~6절)
2. 주께서는 자신의 백성이 환란을 당할 때 그들에게 어떻게 행하십니까?(10절)
3. 이스라엘의 처지를 보며 선지자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15~19절)
4.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 십자가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만민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한 악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에도 기뻐한 에돔은 성경에서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을 대적하는 원수를 상징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 백성의 원수들을 대표하는 에돔의 멸망을 선포하면서 주와 그의 백성들을 대적하던 자들에게는 주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이 심판의 자리에서 대적자들에게 원수를 갚는 분이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말합니다. 이 심판자가 입은 붉은 옷은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가리킵니다(계 19:11~14). 또 본문 1절의 주제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메시아가 에돔의 정복자가 된다는 발람의 예언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참조 민 24:17~18 암 9:11~12).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사탄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고 장차 재림의 주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고 영원히 다스리실 것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고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골 2:15). 따라서 마지막 날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비와 긍휼을 구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합니다.

■ 세상으로

1.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특별한 은총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2.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심판에서 벗어난 것(요 5:24)을 믿으며 살고 있습니까?

* 합심기도, 찬송 후에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모임을 마칩니다.

12월 14일

주일

구역모임
소그룹 성경공부
(G.B.S.)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 신약고백(사도신경)과 찬송과 기도로 시작한 후 본문을 읽고 말씀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 믿음으로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우리를 빚으신,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사랑스런 자녀로, 존귀한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적 선택으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은 회개하는 심령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존재하는 우리의 삶을 친히 돌보아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습니까?

■ 말씀으로

먼저 이사야 64:1~12을 읽으십시오.

1. 죄에 빠진 이스라엘은 어떤 모습입니까?(6~7절)
2.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선지자의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8~9절)
3. 선지자가 하나님께 아뢰는 이스라엘의 참담한 상황은 무엇입니까?(10~12절)
4.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 십자가로

본문은 앞장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선지자의 기도로 계속 연결됩니다. 이스라엘이 처한 곤경의 원인은 그 백성의 죄에 있었습니다. 선지자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들을 구해달라고 주님의 긍휼을 기대하며 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앞장에서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출애굽 시키시고 가나안으로 인도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현재의 환난에서도 구원해 주실 것을 부르짖었습니다. 본문에서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여러 가지 죄악을 탄식하며 고백하고 회개한 다음에 유다와 이스라엘의 황무한 상태를 하나님께 아뢰며 긍휼과 구원을 베푸시도록 애원합니다. 왜냐하면 죄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이런 탄식과 회개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회개한 후에도 우리는 인간의 근본이 진흙이고, 하나님은 토기장이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의 자세입니다. 이러한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심령에 흐를 때 시작됩니다. 따라서 오늘도 철저히 십자가만을 붙들고 겸손히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 세상으로

1. 습관적이거나 형식적인 회개 기도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2. 당신은 하나님의 어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까?

• 합심기도, 찬송 후에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모임을 마칩니다.

12월 21일

주일

구역모임
소그룹 성경공부
(G.B.S.)

내가 여기 있노라

* 신앙고백(사도신경)과 찬송과 기도로 시작한 후 본문을 읽고 말씀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 믿음으로

하나님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셔서 자기 백성에게 주십니다. 이 새로운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전에 지은 죄 때문에 겪은 슬픔이나 절망들을 반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지으셨을 때 심히 좋아하신 것처럼,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백성들을 기뻐하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들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총으로 인해 자기 백성을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삼으시고 기뻐하십니다. 이처럼 새롭게 창조된 백성들은 완전한 평안을 누리는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 말씀으로

먼저 이사야 65:1~25을 읽으십시오.

1.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죄악들은 무엇입니까?(1~7절)
2. 여호와께서 주의 종들에게 주시는 기쁨은 무엇입니까?(13~16절)
3.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습니까?(17~25절)
4.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 십자가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거부하시더라도, 그 원인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찾으면 만나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백성이 거부당하는 이유는 그들이 죄악으로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구하지도, 찾지도, 부르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종일 손을 펴서 부르셨습니다(2절). 그리고 선지자에게 새로운 나라에 대한 계획을 보여 주셨습니다. 선지자는 야곱의 씨, 곧 남은 자들로 이루어질 새로운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완성될 것을 예언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로 만들어질 새 나라에는 슬픔으로 인한 울음소리와 고통으로 인한 부르짖음이 더 이상 없습니다. 그곳에서는 죽음과 재난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과의 완전한 교제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바로 이 나라가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받은 우리가 장차 들어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 세상으로

1. 당신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2.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살고 있습니까?

* 합심기도, 찬송 후에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모임을 마칩니다.

12월 28일

주일

구역모임
소그룹 성경공부
(G.B.S.)

내 앞에 나아와 예배하리라

* 신앙고백(사도신경)과 찬송과 기도로 시작한 후 본문을 읽고 말씀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이스라엘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 모든 백성들에게 넘쳐흐릅니다. 하나님은 이 은혜를 더러운 죄와 오랜 수치 가운데 있던 우리 민족에게 보여주시고, 더 나아가 이제 우리를 온 세상으로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이요, 외인이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던 이방인들이(엡 2:12)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특권을 받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시는 구원의 경륜입니다.

■ 말씀으로

먼저 이사야 66:1~24을 읽으십시오.

1.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기쁨은 무엇입니까?(10~14절)
2. 주의 심판을 받게 되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15~17절)
3. 주님께서 제사장과 레위인으로 삼겠다고 하신 대상은 누구입니까?(18~21절)
4.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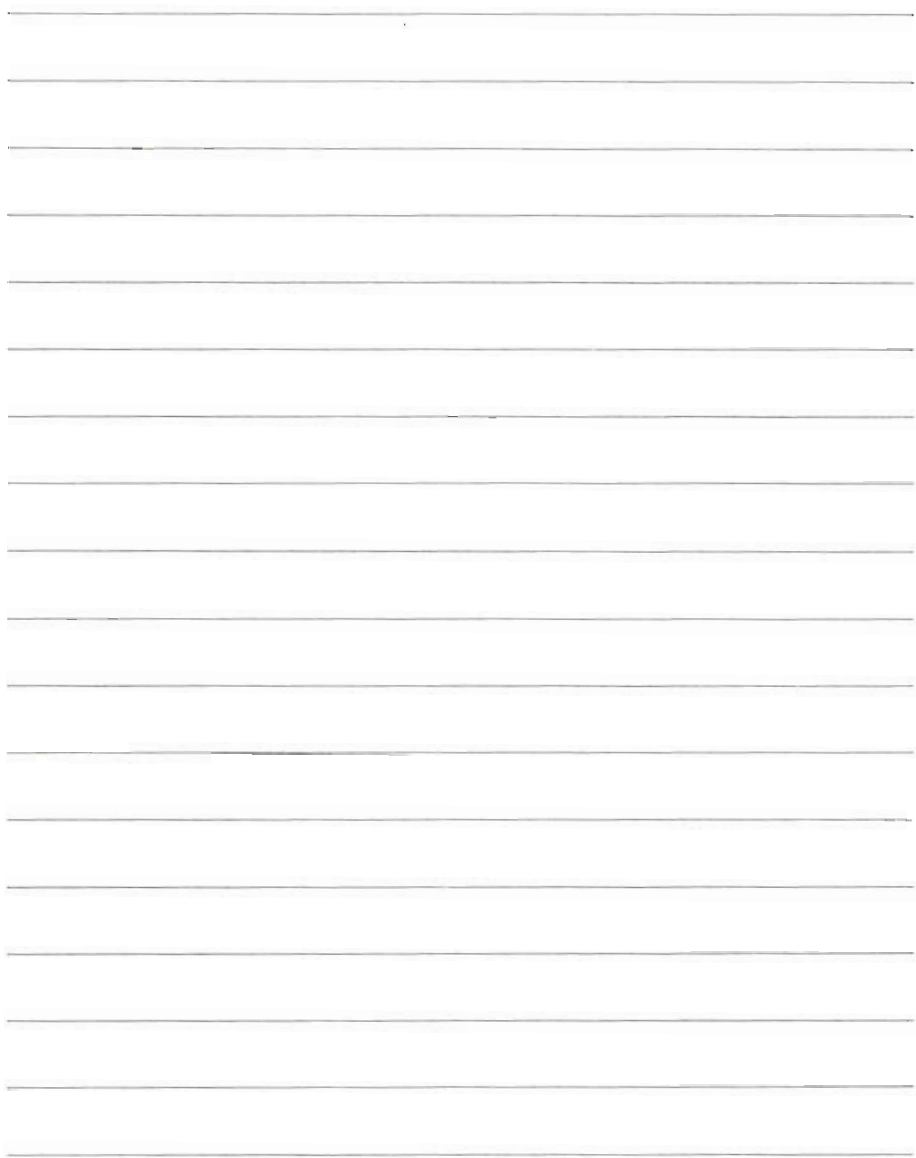
■ 십자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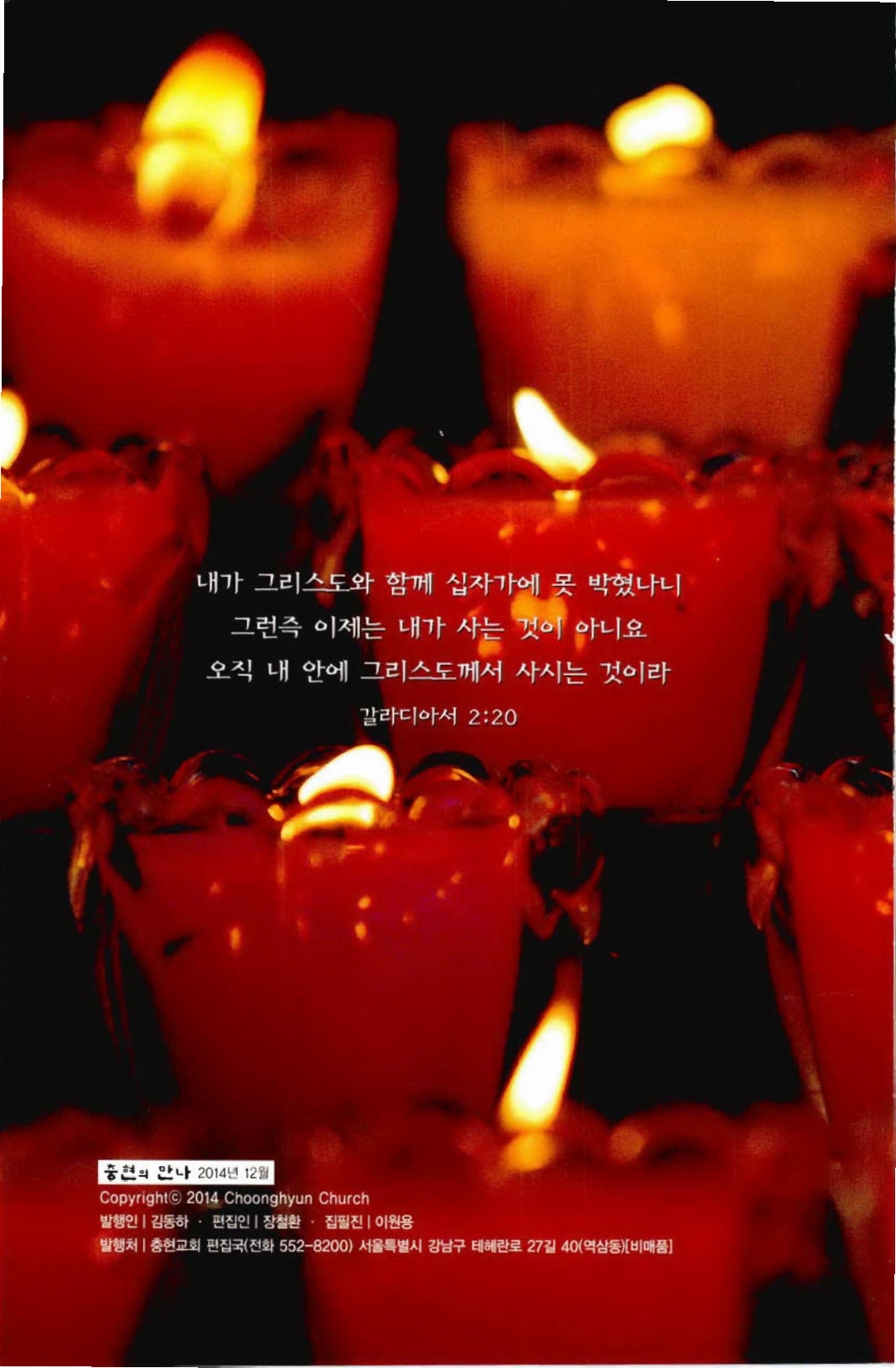
본문은 이사야의 결론에 해당합니다. 곧,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방인에게까지 구원이 확대될 것과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에 대한 심판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의인에 대한 위로와 악인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복은 시온을 통해 열방으로 흘러갑니다. 시온은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 그리고 예배의 중심이 되는 곳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시온은 교회라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로 이뤄진 모임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진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는 못 나라의 백성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오직 그분만을 경배하는 자들로 구성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못 나라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여 이방이 주께로 돌아와 경배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이방인을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으로 삼으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는 유대인들을 배제시키지 않습니다. 스스로 거룩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는 사람들, 자신만의 경건, 예수 그리스도와 무관한 선행을 추구하는 사람들, 끝까지 패역한 자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세상으로

1. 주님의 거룩한 공동체인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하며 섬기고 있습니까?
2. 경건의 모양과 능력(딤후 3:5)에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 합심기도, 찬송 후에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모임을 마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20

충현의 만나 2014년 12월

Copyright© 2014 Choonghyun Church

발행인 | 김동하 · 편집인 | 장철환 · 집필진 | 이원웅

발행처 | 충현교회 편집국(전화 552-820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27길 40(역삼동)[비매품]